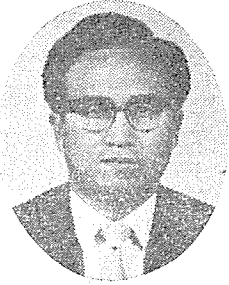


韓國纖維工學會편

量에서 質로 跳躍할 時期

우리말 섬유사전 발간 예정



金魯洙 會長

에너지 危機와 資源의 武器化에다 世界的으로 類例없는 纖維業界의 不況이 接친 不安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1975年은 우리 學會로서도 근래에 없던 쪼들리는 해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해 우리나라 纖維製品의 輸出額이 各박한 國內外的 經濟 여건에서도 總輸出額의 307%에 이르렀다는 것은 全纖維人의 그 동안의 刻苦에 對한 當然한 報答이라 해야 할 것이다. 방대한 背景産業을 가진 韓國纖維工學會는今年에도 積極的으로 活動을 強化하여 學問의 發展과 技術의 振興에 貢獻함은 勿論 學會의 基盤을 굳게하고 纖維界에의 寄與度를 높여야 할 것이다.今年度 우리 學會의 事業計劃중에서 특히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몇가지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纖維辭典 刊行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年間 계속될 이 事業의 가장 核心이 되는 用語蒐集, 用語의 審議, 및 解説 原稿를 作成하는 일이 100餘名의 關係 學者 技術者에 의해서 올해에 遂行된다.

不行히도 우리는 아직 우리말로된 纖維辭典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纖維關係의 教育, 研究, 試驗, 檢査, 生産, 貿易 및 行政등의 各分野에서 증사하는 專門家들은 正確한 定義가 내려져 있지않은 不自然스러운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오는 絀陷을 수 없는 混亂을 가져오고 있는 實情이다. 더우기 必要이상의 外來語의 濫用에 이르러서는 辭典편찬의 時急성을 切感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事業은 用語의 解説이란 辭典本來의 구실의에 不適當한 상태로 定着한 外來語들을 보다 精確한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次元 높은 目的도 지니고 있다.

◎ 會誌, 研究發表會, 國際的인 學術의 交流
근래 投稿論文이 急增하여 年 4회의 會誌發行으로서는 研究論文의 消化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기뻐해야 할 일로서 會誌發行初期에 掲載할 論文이 모자라 編輯者를 우울하게 하든 것과는 隔世之感이 있다. 會誌의 增面은 學會의 財政赤字를 늘릴 要素가 되나 學會活動의 積極性을 阻害하지 않기 위하여 增冊이 檢討되어야 한다.

그 밖에 年 2회의 學術研究發表會와 前年度부터 實施하여 많은 會員의 呼應을 얻고있는 세미나 開催를 예정하고 있으며 2名의 外國人 學者를 招請할 計劃이다.

◎ 組織 및 財政強化

學會의 財政은 正會員, 特別會員등의 會費에 의해서 維持되는 것이 健實하고 바람직한 方向이 아닌가 생각된다. 例年에 없이 어렵게된 學會의 經濟狀況을 打開키 위하여 會勢를 擴張하고 最少의 會費負擔으로 最大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

◎ 學會賞

天然資源이 모자라는 우리나라에서 頭腦야말로 貴重한 資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纖維界도 量에서 質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時期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 對한 重要性和 意慾을 起고하고, 學會에 功勞가 큰 인사를 表彰하는 學會賞이 前年度부터 實施되고 있다. 權威있고 알찬 賞이 되도록 努力하고자 한다.

이상과같이 會誌의 充實은 물론 學術發表會세미나 등의 活發化, 會勢擴張, 辭典刊行등을 통하여 會員各自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實證하고, 參與意識을 높이는 것이 學會 育成的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